

## 머리말



새천년(New Millennium)을 맞아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속에서 우리 외교는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분단 반세기만에 실현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그동안 ‘국민의 정부’ 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이 결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근래 최대의 위기로 일컬어졌던 금융위기를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함께 경제도약과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차원 높은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소명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의 결실이 있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고 한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노력이 집중되었던 한 해인 1999년의 우리 외교를 외교백서 발간을 통해 정리해 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외교통상부는 5대 외교정책 목표로서, 대북 포용정책

의 기조하에 포괄적 접근방안을 통한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남북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외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개방 지향적인 경제·통상 외교,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우리문화의 세계로의 발현을 추구하는 문화 외교,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 지원 외교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의 냉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서해사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또한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중국의 협조와 EU, 러시아를 포함한 전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효과적이고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999년중 개최된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우리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인하였고, 특히 최초로 개최된 ASEAN +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굳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1999년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양자와 다자차원에서 다양한 통상외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맞는 무역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포괄적인 의제의 WTO 뉴라운드 협상이 조기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제사회의 지도적 중견국가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동티모르 사태의 해결을 위해 UN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보병부대를 파병하였으며, 터키와 대만의 지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조대를 급파하였습니다. 이밖에 UN 등 다자외교무대에서 인권, 군축, 테러, 마약, 국제범죄, 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공동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불리우리만큼 각국이 문화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문화산업이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형태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박물관내 한국관 설치 등 적극적인 문화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에는 재외동포의 숙원사항이었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국내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재외동포들의 일체감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외교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원하게만 느껴지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체제 구축이 우리의 일관된 노

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로 그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은 아시아와 유럽국가 정상들이 자리를 같이하는 ASEM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해입니다. 외교통상부는 ASEM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제도개혁도 단행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열린 외교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외교조직, 체제 정비를 통하여 무한 경쟁의 시대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외교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1999년 한 해 동안의 우리 외교활동을 기록한 이 외교백서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주요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외교정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0년 7월  
외교통상부장관 이정빈